

▶ 가족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조사대상자의 가족의식을 중심으로-

김 양 희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 호 민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가족복지전공 박사수료)

최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로 가족구조는 규모의 단순화, 소수화를 특징으로 하면서 형태의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근대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의 모습은 이러한 근대적 사회질서 속에서도 혈연의 '정'이 강조되고 가족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시되는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가족구조의 외형적 변화만으로는 가족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식의 변화로 야기되는 가족의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의 방향을 제한적이거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모형 연구를 통한 교육내용이 개발되고,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질문 문항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의식, 가정생활관, 가정의례문화인식, 성평등 인식, 일반적 사항, 가정문화교육실태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17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가정의례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가정의례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혼례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기 원하는 기관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의례문화프로그램을 학교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날은 설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가정문화활동(행사)은 명절지내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명절알기와 풍성한 명절놀이 및 명절지내기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올바른 명절지내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종교, 성별, 수입, 가족구성원, 직업에 따른 가정의례교육을 받았던 기관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입에 따라 가정의례교육 유무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결혼유무에 따라 가정의례교육 유무, 가정의례교육을 받은 기관, 가정의례교육을 받기 원하는 기관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